

함평, 회복적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학부모·지역민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성황리

모든 공동체에 '관계의 회복·성장' 필요해



함평교육청이 학부모 및 지역민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 까지 5일 간 회복적 생활 교육을 진행했다. 총 20시간으로 구성된 이 교육은 존중과 신뢰에 기반

한 가정-마을-학교의 회복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행 중심 연수로 기획됐다.

개강식에서 박영숙 교육장은

"부모와 아이, 교사와 학생과의 관

계를 세워가는 과정인 회복적 생활 교육은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 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다."면서 "아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이의 삶의 환경인 가정과 마을이 회복적 마을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수는 베인숙 다우리행복연구소 소장과 한영수 나산실용예술 중 교사가 팀워크를 이뤄 진행했다. 매일 4시간 씩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이해', '존중의 약속 만들기 평화 감수성 키우기', '평화로운 가정 만들기', '회복적 대화법 이해와 실습', '정의로운 해결과 길등 개입', '화해 조정 프로세스', '회복적 생활 교육 설계와 피드백' 등의 내용을 실행 중심으로 강의했다.

연수에 참여한 함평초 한 학부모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관계

회복과 성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5일 동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부단히 실천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면 한 주민은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연수를 계기로 마을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어 함평지역이 회복적 마을이 되어가는 과정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육지원과장은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가정-마을'이 연계된 회복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남교육청-목포대학교 교육협력 업무협약 맺었다



전남도교육청과 목포대학교가 지난 10일 오전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날 정석용 전남교육감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이 서명한 협약서에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진로 맞춤형 고교교육 확

대, 지역인재 육성 및 농산어촌 교육 소외 지역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교육봉사 및 학교 현장실습 등 우수 교사 양성을 위한 협력, 교육성과 자료 공유 및 교육 통

계·정보 교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발전 초석을 쌓고, 서로 힘을 보태 전남교육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의 우수 인재들이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형 교육체제인 고교학점제가 지역의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경종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교육 협력 협약은 두 기관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 혼돈과 경쟁 교육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긍정의 물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순천대 "재정 효율화 방안 운영...위기 극복 성과 확인"

순천대학교는 입학지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실행 과제를 추진한 결과 성과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대는 지난해 7월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꾀하고자 대학 재정을 총괄할 '재정기획실'을 신설했다.

이어 하계보직자 워크숍 등을 통해 부서별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총 44개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지난 1월에는 각 부서의 재정 운영 효율화 과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강의료 개선(보직교원 초과강의료 미지급 등)으로 연간 강의료 8억원 이상, 에너지 지킴이 활동·전기 시설 개선으로 연간 4억원, 지하수 사용 등으로 공공요금 약 3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감효과를 확인했다.

외국인장학생(GKS) 한국어 연수 기관 선정 등으로 올해 외국인 등록금 수입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학사구조개편을 전격 단행해 단일학과 통합, 전공트랙학부 전환 등의 성과를 냈으며 2022년 학부 6년제 전환 등을 추진했다.

순천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중기 재정운영계획(2019~2023)을 수립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에 전력할 방



침이다.

고영진 총장은 "이번 재정 효율화 점검을 통해 재정 확충 상황과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3주기 대학기본 역량진단 평가를 잘 준비해 자율 개선대학에 진입하고, 50위권 진입을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첨단학과 신설될까

여수시, '30만 시민 기대' 담은 의견서 교육부 제출

정원은 해마다 줄어 매년 약 150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방대의 위기와 축소는 지역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이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최적의 임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첨단학과 신설을 전 시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첨단학과 신설은 첨단 분야 관련성과 지역 산업 연계와 활용 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교육부 심사를 거쳐 2월 말 결정되며, 2021학년도 모집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수=김도현 기자

광주시교육청 '아·지·트' 툴킷 보급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중심 공간 혁신 '아·지·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툴킷 및 워크북을 발간하고 2020년 사업 참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지·트' 프로젝트 툴킷은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창의적 솔루션 수행을 위해 제작된 프로세스이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운영되도록 구성됐다.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및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구성된 툴킷은 '아·지·트' 프로젝트 3단계(공간 느끼기, 공간 탐색하기, 공간 창조하기)를 제시한다.

공간 느끼기 단계는 ▲공간 공감지도 만들기 ▲공간 별명 만들기 ▲1차 인사이트 투어 등의 과정

벌교公圖, 성인문해교육 신입생 모집

교육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학력이 없는 성인이 1~3단계 과정을 3년간 이수하면 별도의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벌교공공도서관은 2013년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문자해독

